

일반고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전북교육청, 전북소재 2개 학교 거점학교로 지정... 2학기부터 운영 예정

전북교육청은 도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소재 6개 지역(전주, 익산, 정읍, 남원, 장수, 순창) 15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근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소인수 선택 또는 교원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의 한계로 인해 개별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특정학교에서 개설해 본교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공동

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 학생은 730명 정도이다.

주요 개설 과목을 살펴보면 과학실험, 논술, 국제정치, 과제연구, 공연실습, 애니메이션, 영화 콘텐츠, 중국어 회화, 음악전공실기, 미술전공실기, 체육전공실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2019학년도부터는 인근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를 더욱 확대하고, 또한 교실온넷(www.classon.kr)

을 통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소재 2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모바일 또는 PC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

고 협력하며 발표하는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인근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자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 인근 학교나 온라인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정책' 중의 하나다.

/장은성 기자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자료사진.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구축에 앞장 전북체육회... 도내 스포츠클럽 선수저변확대 높이 평가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018 스포츠클럽 선수저변확대 성과평가'에서 도내 스포츠클럽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선수 육성반과 전문선수 신규 육성반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스포츠클럽 2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클럽 단위가 아닌 1개 종목(선수단) 단위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완주스포츠클럽(검도·택견)과 전북스포츠클럽(아이스하키·배드민턴·수영), 익산스포츠클럽(유도), 군산스포츠클럽(테니스)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완주스포츠클럽의 검도반은 전국 2위에 올랐고 전북스포츠클럽의 아이스하키반과 익산스포츠클럽의 유도반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또 전북스포츠클럽의 배드민턴과 군산스포츠클럽의 테니스도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스포츠클럽들이 선수 저변확대와 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포츠클럽들에 대해 해외탐방 기회

제공, 각종 공모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영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포츠클럽의 경우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며 "체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맞춤형 진로 진학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 될 것"

전북교육청, 고1·2 대상 EBS 공동주관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EBS와 공동주관으로 '2020학년도 수능대비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고1·2 학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은희 EBS 대표강사(방송고)가 '2020학년도 수능대비 EBS 활용전략 및 학습법'에 대해 설명하고, 윤기영 EBS 전속교사(충안고)가 '2020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을 주제로 전형 바로 알기와 수시 및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수능대비 학습전략과 대입 일정별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EBS 수능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EBS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특히 EBS 대표강사만의 학습법과 노하우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시설명

회에 참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일대일 맞춤형 진로 진학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습 노하우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함께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문화'

전북 소프트웨어 교육한마당 성료 축제형식으로 흥미로운 체험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 '전북 소프트웨어(SW)교육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고 전주교대(SWEET사업단) 주관으로 전주교대 체육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사고 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행사와 달리 경쟁보다는 협력,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축제형식으로 꾸며지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프트웨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소프트웨어(SW)교육 문제해결 콘서트'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학생 4명이 1팀이 되어 하루 동안

주어진 과제 범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형 축제다. 참가팀에게는 기념품과 수료증을 발급하며, 참가자들이 선발한 우수팀(초·중등 30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로봇 활용 SW교육 수업 캠프-엔트리와 햄스터가 함께하는 미로탈출'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20팀씩 4개의 세션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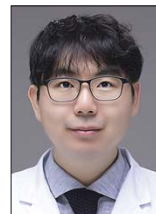
'EduTech-Fair : SW교육 관련 전시와 체험 부스'는 현장견학을 통해 다양한 관람과 체험이 가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창작품 공부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SW)로 구현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 박사과정 광성철 씨 교육부 주관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의 과대학 해부학 교실 박사과정 광성철(사진) 씨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박사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최장 3년 동안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등록비와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글로벌박사펠로우십은 세계 수준의 연구자 양성을 위해 2011년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 개인 역량에 따른 소질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단 지원방식이 아닌 학생 개인 지원 방식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국내·외 학술활동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의예과 양미영 교수의 지도를 받는 광성철 씨 연구주제는 '뼈 질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분자표적으로서 마이오카인의 기능 및 기전 규명(The function and mechanism of myokines as a new molecular target for the treatment of bone diseases)으로 광성철 씨는 지난 석사과정을 비롯한 박사과정 기간에 관련 연구를 수행해 SCI급 저명 학술지 주저자 논문 게재와 함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차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박사과정 광성철 씨는 연구실적 및 전공 기초능력 이해도, 연구계획의 체계성, 우수성, 독창성을 평가하는 1차 서면평가와 논리적 의사전달 및 설득 능력, 영어 구사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2차 면접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글로벌박사펠로우십에 최종 선정됐으며, 최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증서를 수여 받았다.

/익산=유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